



◀김주연 작 '존재의 가벼움'

이강하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추천작가 전문가 매칭지원' 선정 5월8일까지 연계기획전, 권승찬·김주연·조정태·김설아 4명 참여 전남도립미술관은 4월~9월 추천 작가 강운·박치호 개인전 개최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또 다른 시선'

미디어 아티스트 권승찬 작가는 지난해 큐레이터 박동기(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차장)씨와 자신의 고향인 광주, 화순, 성남 등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자연스레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작가 출신 기획자인 박씨는 평론가 권승찬의 진지한 경험, 결집이 "늘 움직이고 발품을 팔면서 그만의 공간과 시간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필드형 작가"인 권승찬의 작업에서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포획한 노동과 행위, 변화와 충돌,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광주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이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전국국립미술관 협력망 사업 '국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돼 이뤄졌다.

이강하미술관은 2020년에도 국립현대 미술관의 '지역 미술관-신진작가 발굴' 프로젝트에 선정돼 설박·김자이·정덕용·정유승·이조흠·하도훈 작가가 참여한 전시 '불가능을 통해 약속된 가능성' 전을 광주와 서울 스페이스 9에서 개최했다. '지역 미술관의 경계를 넘어 동시대 문화예술의 플랫폼이자 허브 역할'을 지향하는 이강하미술관은 최근 성남문화재단 큐브미술관과 협약을 체결, 성남과 광주 전시를 추진하는 등 전국 국립미술관의 지속적인 협력망을 구축 중이다.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는 작가들에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의미가 있다. 자신의 작품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평론가들의 시각과 함께 타 지역 전문가들의 '또 다른' 시선을 접할 수 있다면 작업 세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국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은 지역 작가들에게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이강하미술관이 오는 5월 8일까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4명의 작가를 초청, '생동하는 기억, 감각의 은유'를 주제로 기획전을 열고 있다. 기획

자 이 선 큐레이터는 각 작가의 작품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 생동(권승찬·설박·미디어), 기억(조정태·회화), 감각(김주연·사진·설치), 은유(김설아·회화) 등의 키워드를 찾아내 전시를 꾸렸고, 전시장 입구에는 네 명의 작가의 일상과 작업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배치했다.

김주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아이의 원피스, 여성의 검정 코트 등 인간의 옷을 토양 삼아 싹을 틔우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한 '존재의 가벼움' 시리즈를 전시 중이다.

또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독일 베를린과 담양 등에서 수집한 농기구 등 낡은 금속 오브제를 세심히 배치해 '선박' 모습으로 재현한 're-turn'을 선보이고 있다. 그가 펼쳐 놓은 오브제들은 기억의 파편이자, 집안의 내력일

수 있고, 동서양의 결합을 상징할 수도 있다.

김설아 작가 작품 가운데서는 지난 2021년 옛 국군통합병원서 열린 '메이투데이' 전 출품작 '불면의 숲조림 비명의 기억'이 눈길을 끈다. 수백 가닥의 채혈줄을 일일이 라이터로 태운 후 마치 쏟아지는 신음처럼 풀어헤쳐 놓은 작품은 5월 회생자들을 기억하게 만든다.

조정태 작가는 강렬한 회화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신작 3점을 출품했다. '별이 된 사람들-귀천'과 '누군들 그렇지 아니할까?' 등이다. 또 권승찬 작가는 작품에 센서를 탑재, 작품과 관람객이 조응하는 인터랙티브 작품 '완성은 허무하고, 높은 것은 불안하다'를 전시 중이다. 작품에 다가 가면 빛이 소멸해버리는 역발상이 흥미롭다.

전문가들의 글도 눈길을 끈다. 김종길(경기도

미술관 DMZ아트프로젝트 전시감독)의 '그늘 현실의 뒤범벅 조정태의 '몽환 연작'과 사면리얼리즘 미학', 이윤희(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의 '김주연: 옷에서 자라는 싹의 의미', 마동은(대구미술관 전시기획팀장)의 '김설아, 경험과 기억을 은유하는 이미지' 등이다.

한편 지난해 같은 프로젝트에 선정됐던 전남도립미술관은 추천 작가인 강운 작가의 '운운하다' 전(4월~6월)과 박치호 작가의 개인전(6월~9월)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의 작품 세계는 이명옥 사비나 미술관장의 '어디에나 균열은 있다. 빛은 그 깨진 틈을 통해 들어온다'(강운), 이선영 미술평론가의 '빈 서판(書板)으로서의 몸'(박치호)이라는 글에 담겼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전국국립미술관 협력망 사업 '국립미술관 추천작가-전문가 매칭지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생동하는 기억, 감각의 은유' 전이 오는 5월 8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강 '채식주의자' 15년만에 개정판 출간

지난 2007년 출간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2016년 세계적인 권위의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 100만 부 가까이 팔렸다. 또한 40개가 넘는 국가에 판권이 수출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책은 '채식주의자', '몽고반질', '나무 불꽃' 등 소설 3편을 연결한 연작 소설집으로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식주의자'가 발간 15년 만에 새 개정판으로 나왔다. 소설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육식을 거부하는 여자가 채식을 하면서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내용이 담겼다. 영해는 어느 날 꿈에 나타난 끔찍한 장면에서 사로잡혀 육식을 거부한다. 유년 시절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아버지에게 오토티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이던 장면이 트라우마가 되고 만다.

한편 한강은 다시 쓴 작가의 말에서 "출간 후 15년의 시간이 세찬 물살처럼 흐르는 동안, 고백하자면 이 책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며 "세간의 관심도 오히려 뜨겁고 날카로워, 혼자서 이 소설을 써가던 순간들의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듯 느낀 때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통신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제13기 통신원 '모담지기' 6명을 모집한다. 통신원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인물 취재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통신원별칭인 '모담지기'는 '벗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모여서 담소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며 개인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자는 우대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달 1회 이상 문화예술교육 현장 취재 및 인터뷰 등을 담은 글과 사진을 작성해야 한다. 원고는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센터가 발간하는 온라인 뉴스레터 '율림'에 수록돼 회원에게 발송된다.

통신원에게는 취재 및 글쓰기 교육,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등 기회가 주어지며 광주문화재단 행사의 무료 관람 기회와 소정의 활동비(원고료 포함)도 지급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8일까지 지원신청서 등을 이메일 접수(gjarte@hanmail.net)하면 된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5763. /박성천 기자 skypark@

'유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4월3일까지 운영단체 추가공모

광주문화재단은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추가모집 공모를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운영했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각각 15개 유아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2개 예술단체를 선정, 단체 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유아교사 및 학부모대상 문화예술교육워크숍 운영단체는 1400백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광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문화예술단체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하며 유아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광주문화재단 혹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jarte@g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5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곡가 이승규와 함께 하는 예술여행'

뮤직투어 '광주' 30일~4월1일 갤러리S... '용아 갈라쇼' 등 무대

광주 명소를 음악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뮤직투어 '광주'가 오는 30일부터 4월1일(오후 7시30분)까지 3일 간 갤러리 S (광주시 남구 서서평길 2)에서 열린다.

'작곡가 이승규와 함께 하는 예술여행'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중인 이승규씨가 광주 명소를 주제로 직접 만든 곡을 들려주는 시간으로 양림동, 상무소각장, 하정중 미술관, 사작공원, 용아생가에 대한 음악과 해설이 함께한다.

공연 첫 날인 30일에는 바이올린 이창훈, 첼로 박효은과 함께 선보이는 '디아스포라, 세 개의 슬

픈노래'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모티브로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 들려주는 피아노 모음곡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를 연주한다.

'디아스포라, 세 개의 슬픈노래'는 '흔적', '진혼', '위로' 세 곡으로 구성된 무대로 경쟁을 부추기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방향과 갈등을 겪는 현대인들에 작은 위로를 전하는 무대다.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에서는 '백두산 호랑이', '북극곰', '재두루미', '상괘이', '수달', '흰뺨코뿔소' 등을 주제로 만든 곡을 들려준다. 마지막 곡 '인간'은 즉흥곡으로 피아노에 스레기를 넣는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인다. 스레기 종류에 따라 기괴하고 우울한 소리를 내며 파괴된 지구

를 위해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1일에는 사작공원을 산책하며 얻은 아이디어를 곡으로 만들어낸 피아노 모음곡 '시'와 양림동 일대의 건축물과 자연을 담은 피아노 모음곡 '양림의 거리'를 연주한다.

공연 마지막 날인 4월1일에는 '용아 갈라쇼'를 선보인다.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줬던 용아 박용철이 나고 자란 생가를 배경으로 한 공연으로 그의 삶, 인연, 꿈에 대해 들려준다. 바리톤 이준



이승규



이창훈



박효은

희, 테너 서재원, 소프라노 김아라, 배우 이하늘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승규씨는 "광주를 주제로 한 창작음악을 통해 또 다른 방향과 시각에서 광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착순 사전예약제. 무료 관람. 문의 010-3093-48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국학호남진흥원,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국역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과거시험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했을까? 조선시대 생원시(生員試) 진사시(進士試) 등 과거시험의 답안지나 문제지 등을 흔히 시권(詩券)이라 한다. 시권을 수집하고 국역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사진)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덕염)은 조선시대 과거시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역한다. 이번 사업은 조선시대 벼슬에 나아가기 위한 통로였던 과거시험의 답안지를 목록화하고 번역함으로써 당대 문화를 조명하고 콘텐츠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에서는 조선시대 호남 출신의 인물 41명의 과거시험 답안지를 목록화, 국역화할 예정이다. 대상 인물로는 담양 송순, 영광 강항, 장흥 위백규 등 41인이다. 자료집은 간행물 두 책 분량으로 원고지 5000여 매 정도다.

한편 천덕염 한국학 호남진흥원장은 "향교 서원,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시권을 국역해 향후 과거시험을 재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토대로 전통문화 공간인 향교, 서원을 활성화하고 기록문화인 시권을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603-961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